

##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실천 전략\*

안 영 진\*\*

이 글은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의 성공적인 여수 유치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요인과 교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실패 원인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핵심은 정부의 의지 부족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뒷받침도 결여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개최 후보지인 여수에 고속도로조차 없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으로는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심분 활용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역할분담을 통해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확고한 뒷받침과 아울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2008년 실사 이전까지 교통망 등의 각종 하부구조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세계박람회, 여수, 해양 엑스포, 유치 방안

### I. 서 론

지난 2004년 12월 7일 정부는 정부 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2012년 세계박람회를 국가 계획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 여수 유치를 국가 계획으로 최종 확정함으로써, 2년 전 201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여수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게 되었다.

정부의 이번 국제행사 승인은 일차적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 실패 이후 여수 등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등을 망라한 350여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5년 5월 여수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대한지리학회가 주관한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여수대도시권 발전방향 심포지엄”에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발표 기회를 마련해준 여수상공회의소와 귀중한 조언과 논평을 주신 이정록 교수(전남대 지리학과) 및 장안영 논설위원(광주일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Tel: 062-530-2686, E-mail: yjahn@chonnam.ac.kr

‘2012년 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최 후보지 시·도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번 결정의 의의는 이러한 지역사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제일의 해양수산도인 전남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자원인 해양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경우 국가차원에서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한국이 일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물론 국가계획의 확정이 곧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장정은 비로소 시작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층 더 냉혹해 지고 있다. 최근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박람회를 국가경제의 도약과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의 수단 등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 지식정보화 등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변화와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국가간 합종연행을 추구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박람회사무국(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의 동향 등을 깊이 통찰하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교훈으로 삼는 동시에 지난번 유치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치위원회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전향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참여와 협조 속에서 모든 현안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 여수 유치의 성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즉,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그 실패 요인과 교훈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개최의 기본 사항과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2012년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격과 의의, 그리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내실 있는 유치 전략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과 유효한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과거의 유치 무산의 경험을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도전의 성공 전략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아울러 충분조건이 있을 것이고, 또한 유형과 무형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또한 체계화시켜 유치 방안의 적실성과 실천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II.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과 기본 구상

흔히 ‘엑스포’(EXPO)로 일컬어지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인류가 이룩한 갖가지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통해 한 자리에서 비교·전시하며 인류 대중을 계몽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엑스포는 또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규모 경제·문화 올림픽이기도 하다.

엑스포의 기원은 19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51년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그 후 엑스포는 제1기 기술문명 개발의 시대(1851~1910년)와 제2기 과학 및 예술 진보의 시대(1913~1956년)를 거쳐 제3기 인간성 부활의 시대(1957~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0여회가 개최되었다. 그 동안 엑스포는 박람회의 개최와 운영은 관장하는 공식기구인 ‘국제박람회사무국’에 의한 공인 아래<sup>1)</sup> 내용에 따라 통상 10년 주기의 종합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와 2~5

1) 엑스포는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구분된다. 비공인

&lt;표 1&gt; 국제협약에 의한 엑스포의 종류와 특징

구 분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주제	광범위한 대상 (제한적 대상도 가능)	분명하고 제한된 주제 표현 (국제박람회예관협약 제4조)
개최 기간	6주 ~ 6개월	3주 ~ 3개월
개최 주기	매 5년 주기	두 등록 EXPO 사이 1회
전시관 설치	설치경비 참가국 부담원칙	주최국이 건축하여 무상임대
최근 개최 및 향후 현황	세비아 EXPO (1992년) 하노버 EXPO (2000년) 나고야 EXPO (2005년) 상하이 EXPO (2010년 예정)	쓰꾸바 EXPO (1985년) 대 전 EXPO (1993년) 리스본 EXPO (1998년) 사라고사 EXPO (2008년 예정)

주: 1) BIE(세계박람회사무국)의 공인을 받아 개최하는 규모가 큰 ‘등록엑스포’와 규모가 작은 ‘인정엑스포’로 구분됨; 2) 여수가 2002년 유치하려다 실패한 2010년 세계박람회는 등록엑스포이고, 현재 유치하려는 2012년 세계박람회는 인정엑스포임.

년 주기의 전문박람회(specialized exhibition)로 구분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박람회의 성격을 둘러싼 혼란 등으로 1989년부터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그 대신에 엑스포의 성격과 기간, 주최국의 의무상황, 개최규모, 개최회수 등에 의거하여 등록박람회(registered exhibition)와 인정박람회(recognition)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이정록, 1998).

엑스포는 국제적인 공식행사이며, 엑스포의 개최는 주최국의 기술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개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엑스포의 개최는 국가간 물자와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한 국가의 산업 발전상을 소개하고 국가간 상호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세계화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개최 도시의 교통, 통신, 관광, 레저시설, 도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하여 도시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왔다. 나아가 엑스포는 행사의 준비 및 개최 기간 중 도시발전에의

엑스포는 국가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수준이나 규모가 공인 엑스포에 비해 떨어지며 대부분 국내행사 수준으로 치러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프트 엑스포, 국제 꽃 박람회, 섬유 박람회, 바이오 엑스포, 국제 게임컨텐츠 엑스포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공인엑스포는 세계박람회기구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엑스포로 ‘등록(종합)엑스포’와 ‘인정(전문)엑스포’로 구분되며, 둘 다 국가의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참가국을 유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1993년 과학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전 엑스포’는 인정엑스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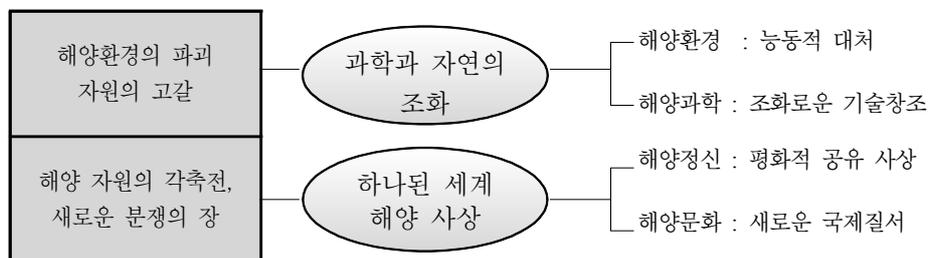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행사를 마친 후 엑스포를 위해 건설한 각종 시설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도시발전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막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ecker, 1986; Moeller, 1989).

1.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해양’ 엑스포로 기획되고 있다. 그 기본 이념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나날이 그 의미가 강조되는 해양과 관련하여 인류가 당면하게 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해양환경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지구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해양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21세기 일류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해양이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류의 모든 삶이 결국 해양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에 있어서 여수의 수려한 바다를 모티브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기본 이념과 구상을 배경으로 잠정적이긴 하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를 “바다 - 우리가 살고 싶은 곳”(Sea - the Place We want to live)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 - 해저자원, 식량자원’, ‘지구환경의 보루 - 해양환경’, ‘새로운 기술의 장 바다 - 21세기 첨단기술’, ‘인적·물적 교류의 바다 - 문화교류의 장, 평화와 상생의 장’ 등 4가지의 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박람회는 사업비로 약 1조 3,804억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1조 3,457억원은 직접사업비(부지매입,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로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347억원은 간접사업비(사후 활용)로 투자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지방채, 세외수입 및 새로운 세원 개발, 선수금제도 활용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3,000억원이, 자체 수입 등으로 8,021억원이,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넨



<그림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본 이념과 구상

&lt;표 2&gt;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명 칭	‘2012년 세계박람회’ (BIE 공인 인정박람회)
주 제	‘해양’ 주제로 별도 선정
기 간	2012. 5 ~ 8월 (3개월간)
장 소	전남 여수시 신항지구 일원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
규 모	약 60만평 (전시단지 34만평, 주차장 20만평, 기타 6만평)
소요 예산	1조 3,800억원 (공공부문 22%, 민간부문 78%)
주 체	대한민국
주 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가칭)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 및 부가가치 16조원, 고용창출 15만7천명

싱, 프로젝트 주식공모, 특수기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2,783억원이 조달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예상 수입은 총 1조 6,146억원(공공부문 투자 2,762억원, 자체 수입 5,686억원, 민간부지 매각 등 7,698억원)에 이를 것이며, 따라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을 장소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세계박람회는 투자만큼 수익과 더불어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박람회의 참가 예상국은 140개국(국가 120개, 국제기구 20개)이며 관람객은 1,500만명(내국인 1,200만명, 외국인 3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sup>2)</sup> 그리고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0조 7,9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5조 3,800억원,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15만 6,700명 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개최 도시인 여수를 포함한 전남지역에 54%, 인접한 경남지역에 16%, 그리고 기타 지역에 30%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기타 파급효과로서 해양과학·해양산업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의 제고, 남해안 일대의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부각 등이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주요 시설내역과 활용계획을 보면 박람회의 각종 전시행사를 위해 확보해야 할 부지규모는 총 60만평에 달한다. 여수항 일원에서 24만평, 덕충동 일원에

2) 1993년 대전EXPO의 경우 1,400만명이, 2000 하노버EXPO에는 1,800만명이 관람하였다.

&lt;표 3&gt; 박람회 전시시설 배치 내역

(단위 : 동, m<sup>2</sup>)

구 분	시설명칭	동수	면적	용도	구조	비고	
	주제관(I)	주제 1,2관	2	24,000	영상관, 수족관	영구시설	
	주제관(II)	주제 3,4,5관	3	30,000	전시관	임시시설	
	국가관	공동 국가관 국제 기구관	6	250,000	전시관	임시시설	시설 150,000
	지역관	지역관, 기업관, 단체관	3	51,000	전시관	임시시설	
행 사 시 설	주관탐로	해양실크로드	1	폭 20m	도로	임시시설	
	대광장	오션프라자	1	15,000	광장	임시시설	
	소광장	씨 프라자	1	6,000	광장	임시시설	
	호수	태초의 바다	1	20,000	호수	영구시설	
	상징물	미래의 등대	1	5,000	상징탑	영구시설	
	컨벤션홀	엑스포홀	1	14,000	회의장	임시시설	
	공연장	야외공연장	1	26,000	공연장	임시시설	
	공원	해변휴양공원	1	40,000	공원시설	임시/영구	
부대 시설	상업·관리 지원시설	레스토랑 관리사 등	7	605,000	부대시설	임시시설	
합계	-	-	28	1,086,000	-	-	

서 16만평, 그리고 만흥동 일원에서 2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60만평의 부지에서 전시면적, 주차장, 그리고 종사자 거주지 등으로 각각 34만평, 20만평, 6만평이 활용될 계획이다. 전시장에는 주제관 5개와 국내 지역관 14개, 국가관 140개 등과 함께 기념탑, 엑스포홀 등 이벤트시설도 들어설 것이다. 세계박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행사는 첫째 바다의 중요성 알리고 공유하는 새로운 문명적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6대주를 형상화하고 바다와 함께 사는 지구촌 모습을 제시하며, 셋째 사후 활용을 고려하여 스튜디오식 전시관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하고, 넷째 관람객을 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추진될 예정이다. 엑스포 시설물들은 행사 후 주로 도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공원, 관광지 등으로 활용되어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2. 추진 배경과 경과

2012년 세계박람회는 국가계획으로 추진되었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여수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라남도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 배경은 개최 후보지인 전남 여수시를 포함한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는 비교우위를 지닌 해양관광 및 문화자원, 해양관련 국가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해양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신해양시대에 부응한 선진 해양 한국의 기틀을 다져나가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는 구체적으로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을 상호 연계시킨 복합적인 목적에 맞추어지고 있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동북아 해양관광지를 적극 육성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와 교류 중심지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라남도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를 연결하는 광역개발로 동서 화합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선진 해양 한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건설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 국제 차원에서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범지구적 모델과 해양자원의 평화적 공유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을 통한 화합과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개도국에 한국 경제성장 모델 및 저비용 고효율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남과 광주의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합의(2004년 1월 15일) 및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의 정부차원 추진방침 발표(2004년 3월 24일)를 거쳤다. 그 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 유치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2004년 4월 16일)되고, 2개월가량의 준비작업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유치 추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 보고(2004년 6월 29일)되는 동시에 국가계획으로의 확정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추진(2004년 8월~10월)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연말에 2012년 세계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및 국가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결정(2004년 12월 7일)된 뒤,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최종적으로 확정(2004년 12월 14일)되기에 이르렀다.

### Ⅲ.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실패의 교훈 : 원인과 성찰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경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는 그야말로 국가계획의 확정 및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방유치 위원회의 발족이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사전 유치준비 단계’를 거쳤을 뿐이다. 장거리 육상경기에 비유하자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지 하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달음질을 위한 준비운동인 워밍업(warming up)을 막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길고도 힘든 노정을 앞두고 있다. 즉,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위한 마스트플랜의 수립, 여건 조성, 대내 홍보 등 ‘유치 준비단계’를 거쳐, 유치 신청서 제출과 대외 홍보 및 교섭활동, 그리고 개최지 결정투표라는 ‘유치 실현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에는 ‘개최 준비단계’, ‘개최 단계’, ‘개최 마무리 단계’ 등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듯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절차에 따른 유치 준비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투표를 통한 개최권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국가 경제발전과 아울러 개최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

<표 4> 세계박람회 신청 절차

단 계	일 정	주요 내용
1단계	EXPO 유치희망의사 발표 (2006년 6월)	· BIE총회에서 구두발표
2단계	BIE 공식유치신청 (2007년 5월)	· 개최일 5년 전 정부에서 공식 신청 · 신청 후 BIE에서 개최계획 조언
3단계	BIE 공시 (2007년 5월 ~ 11월)	· 최초 신청서 접수 후 6개월간 공시 · 경쟁국 신청서 접수
4단계	BIE 현지조사 (2008년 1월 ~3월)	· 공시기간 완료 후 신청국 서면조사 · 서면조사 후 집행위원회 현지조사 · 조사보고서 총회에 제출
5단계	개최지 결정투표 (2008년 6월 ~ 12월)	· 총회에서 신청국 준비계획 보고 · 총회에서 회원국 비밀투표 결정
6단계	개최등록 및 BIE기 수령 (2009년 5월)	· BIE 공인 획득한 후 BIE기(旗) 수령

로 인하여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유치 준비에서 개최지 결정투표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전략과 유효한 실천 방안에 입각하여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총력 교섭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의 유치 무산의 경험을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지난 2004년 12월 3일 오후 모나코 그리말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2차 총회에서 89개 회원국들이 실시한 비밀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당시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우리나라(여수)를 포함해 중국(상하이),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브로츠와프), 멕시코(케레타로) 등 5개국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우리나라 여수는 당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50여명의 민관합동 고위대표단이 현지에서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남북한 냉기류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표 직전까지 지지를 호소했지만, 4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쟁국인 중국 상하이에 34표 대 54표로 석패했다. 1차부터 3차까지 28표, 34표, 32표를 얻어 분전했으나 마지막 4차 투표에서 54표를 얻은 상하이에 20표차로 패하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는 무산됐다. 이로써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축구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축제를 국내에 유치하려던 민간 합동 유치위원회의 6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여수의 패배는 당시 모나코 총회장 안팎에 있던 200여명의 한국 관계자는 물론이고 텔레비전 앞에서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의 낭보를 기다리던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 1. 실패 요인

그동안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물론 당시 유치위원회가 유치 실패에 따른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또한 이미 2여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인 설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 결정권 투표 직후부터 국내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적잖은 국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유치 실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 분위기나 당시의 국제정세의 흐름과 같은 외적 상황에서의 불리한

여건이 하나의 실패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최지 결정투표를 전후하여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에 뒤이어 세계박람회까지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서유럽과 일부 선진국의 악의적인 보복성 루머 내지 견제에 밀려 막판 세몰이에 실패했다고 분석이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가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에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였던 중국은 국제정세의 우호적인 흐름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이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으나 중국이 오랜 노력 끝에 이룬 국제무역기구(WTO)의 가입 등과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이른바 ‘중국 붐’에 휩싸이기에 충분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치실패 후 각국 대표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시장을 의식해 물표를 준 것 같다는 분석을 꼼꼼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외교 및 군사강국으로서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경제대국으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이 맞물려 일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적잖은 국가들이 냉정한 판단보다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 중국에 찬성표를 던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둘째,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의 열세와 막판 집중력 약화로 인하여 유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왔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에 뒤진 외교력이 중요한 실패 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그 근거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 중 중국의 외교공관이 설치된 국가는 76개국, 러시아는 63개국인데 비해, 한국은 57개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유치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관 보유비율은 중국의 75%, 러시아의 90%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 공관이 현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요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표발 다지기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논지이다. 또한 최종 투표에서 중국에 20표 이상 뒤떨어지는 열세가 나타났는데도 개표 직전까지 유치 대표단은 한, 두 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에 기대할 만큼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외교 정보력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국가간 자존심과 막대한 경제적 이해가 걸린 ‘총성 없는 전쟁’이며, 따라서 정부 자체 내의 협조와 민·관의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 내의 공조체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유치위원회와 정부유치지원단 간의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그리고 활동 조율 등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점으로 막판에 효과적인 외교전을 펴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당시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BIE 총회가 열린 모나코와 인근 프랑스 니스 등에 현수막, 유치 포스터가 달린 요트, 차량 등을 운영하고 코리아빌리지(한국촌)를 만드는 등 외형적으로 화려한 막판 공세를 펼쳤지만 내부적으로 민간 유치위원회에서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많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고 일부 기업들만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장적인 외교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변변한 카드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약점인 인권이나 환경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셋째,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인 여수의 국제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막판 고배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요 패인은 개최 도시의 인지도 측면에서 중국의 상하이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전남 여수라는 대항마로 맞서기에는 처음부터 적잖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구규모만 보더라도 상하이와 모스크바가 각각 1,700만명, 950만명에 달하며, 32만명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인 여수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수는 상대적으로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도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특히 상하이의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거대도시이자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적인 중국 투자 붐 속에서 이른바 ‘쇼윈도’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구미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표물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수는 상하이와 비교할 때 교통시설을 비롯한 각종 도시 인프라 등 외적인 면에서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치단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반도와 세계평화에의 기여,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을 앞세우며 여수처럼 소도시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 세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박람회 개최의 근본 취지에 맞고 친환경적 운영에도 보탬이 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이 유치 실패의 본질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되어 전방위 유치전을 펼쳐 한때 중국을 크게 위협하는 듯 했으나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적 과제로 천명하고 뛰어난 중국의 높은 벽을 결국 뛰어넘지 못했다. 사실 당시 유치 경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2010년 세계박람회가 처음 거론된 문민정부와 뒤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담보된 공약이 아닌 정치적 배려라는 의구심을 받아 왔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의 200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언급하면서도, 세계박람회의 유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는 당시 일년도 남지 않았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의 태도와 전혀 달랐다. 2008년 올림픽과 함께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중국은 국가원수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의 제1과제로 선포하며, 국가의 역량과 외교력을 총집중했다. 중국은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가 직접 나서 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정상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정상외교를 활발히 폈다. 예컨대 중국은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을 BIE 총회 개막일 전날 북경에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갖고 결선투표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치밀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BIE 회원국 중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상 원조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또한 자국내 외국기업 등을 동원하는 실리적인 유치전략을 펼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의지부족은 당초 정부 지원부서의 혼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방침을 1999년 6월에 확정한 뒤 주무 부처로 해양수산부를 선정했는데, 개최 후보지인 여수의 세계박람회 주제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으로 정했다는 것이 그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산업기술 전반과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세계박람회 특성상 주무부처로 산업자원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산자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해수부가 주무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해수부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태생적 한계’를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것으로 상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 결정된 뒤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해운이나 수산회사 외에는 기업을 다루어본 경험이 없었던 해수부로서는 많은 기업들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해수부 장관이 득표활동을 위해 출국하면, 상대방 정부에서 박람회 주무장관이 왜 해양부 장관인가 하는 질문을 수시로 들어야 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부족은 대회의 성격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한 대처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박람회를 일반적인 ‘해양엑스포’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주요 부처의 간부들조차 세계박람회가 어떤 행사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관련 공무원의 냉소적 평가도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2002년 말 개최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제16대 대선 정국과 겹치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한 점과 따라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유치 실패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회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돕기 위해 2001년 4월에 구성된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단 한차례의 현황 보고만을 받았을 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2002년에 들어서서는 8, 9월에 국무총리 인준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부결되고, 10월부터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정 등 대선 정국에 본격 뛰어들면서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원내 다수당이 당리당략에 얽매어 지원을 외면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관심은 부분적으로 세계박람회가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점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홍보 부족으로 월드컵 대회만큼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뒷받침 없이 정부와 유치위원회의 활동에만 의존한 것이 유치 실패의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999년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2002년 12월 BIE 총회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국가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서 개인별 로비가 그다지 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민간기업을 유치전의 중심에 내세웠다는 것이 또 다른 실패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2. 성찰과 교훈

이미 지적하였듯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서서 노력한 국제행사 중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유치무산은 적잖은 충격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실패 요인들 가운데는 피상적인 분석과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언급한 실패 요인에는 경중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인과 원인 그리고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된 다양한 요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폐기하기보다는 모두를 겸허히 수용하여 차분히 성찰하고,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실패 요인과 결부된 유치과정의 다양한 경험을 단순히 시행착오의 산물로 치부하기보다는 귀중한 노하우로 삼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2년의 유치 실패의 요인에 비추어 본 교훈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세계박람회의 유치도 국제정세 및 대외적 환경으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국제정세와 환경이 국가에 따라 유·불리로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물론 이 국제정세와 환경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만큼 복잡다단한 전개양상을 보여주지만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2002년의 경우에는 국제정세의 흐름, 즉 대세(大勢)를 타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세계박람회 유치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좀 더 냉철하게 조망하고 시대적인 상황여건의 가변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경쟁국면을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2002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느냐는 점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획득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고된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상대가 '상하이'라는 도시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점이 엇보인다. 사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2002년의 경우 우리는 '하면된다'의 정신으로 뛰던 한국식 유치경쟁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독특한 결선투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득표전을 벌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권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개인별 투표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세계박람회는 국가별로 훈령을 받아 투표를 행한다. 개인에 대한 로비가 먹힐 개연성이 많지 않다. 그 대신에 각국이 유치 희망국들에 각종 경제지원과 개발원조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후문이 있듯이, 충분한 사전 대비와 비장의 카드, 그리고 또한 전략적인 교섭 활동이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상하이와 여수를 비교해 볼 경우 도시의 인지도나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지만, 우리는 정보기술과 성장 잠재력만을 앞세운

채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국제행사의 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2년의 실패를 통해 대내적인 역량을 결집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귀착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과 수개월 전의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국민들이 보여줬던 단합이 세계박람회의 유치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유치전 초기부터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과 정부의 의지 부족,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전투구, 그리고 미흡했던 홍보에 따른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국력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하나로 결집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패인이라고 진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록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성과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와 재계 간에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지만 여수 유치를 위해 중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실체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발전상이나 잠재력을 세계에 깊이 각인시키고 우리의 역량도 부쩍 신장시킬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향후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민간 차원에서는 유치에 나선 세계 인사들이 세계 각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비즈니스 인맥을 더욱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고, 민간 외교의 통로를 확대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얻었다. 따라서 지난번의 유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에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2002년의 경우 여수의 국제적 지명도가 크게 떨어져 고전했지만 세계적인 거대도시인 상하이와 모스크바 등과 맞서 결선까지 올라가는 등 선전을 했고 여수의 존재와 면모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스포츠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자세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느냐에 의미를 둔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도 있다. 중국 상하이에 밀려 탈락한 여수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은 그래도 거대 중국과 후회 없는 승부를 벌였다. 우리는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을 어찌면 능력 이상으로 선전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수의 존재를 지구촌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점은 재도전에 나선 여수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산이며 앞으로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비록 200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교훈과 함께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로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되 이러한 교훈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어떤 상황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 IV.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실천방안

그동안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가능성은 2010년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2010년 박람회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이란, 벨기에, 멕시코 등과 2008 엑스포 탈락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6개국 안팎이 우리의 경쟁 대상국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나라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방심은 금물이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할 때 대륙별 안배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sup>3)</sup> 이를 테면, 현재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5 아이치 엑스포와 중국에서 개최될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여수는 지난번의 실패를 통하여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최 도시로서의 국제적 인지도에서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과 국제적 수준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확보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현안과 중차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나선 유치전에 무엇에 전력해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2002년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유치 활동의 성공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숙고하고 깊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도전하는 입장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제에 즈음하여 창의적인 모델 구축과 전략적 정책 테마를 찾아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회원국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주제에 맞추어

3)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문제에는 다소 비관적 요소가 내재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극동지역 역내에서 세계박람회를 연속 개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유치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박람회의 전시 내용이 정해지고 인류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다. 그동안 여수엑스포는 도래하는 해양 문명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신해양강국으로 서게 할 중대한 기점이 되리라는 충정과 명분을 가지고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재도전하는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모든 개최 계획과 방향을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재검토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지난번의 테마를 비판 없이 고수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꼼꼼이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인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아젠다의 설정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 개발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 해양을 박람회의 소재를 자주 활용해왔기 때문에 해양이 식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수의 슬로건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더 의미 있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유치 조직 체계의 확립과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2004년 12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래, 정부 차원에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여수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이,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유치위원회’<sup>4)</sup>가, 그리고 여수에서는 ‘여수시유치위원회’가 각각 발족·운영 중이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지원 역할을 하게 될 중앙유치위원회는 오는 2006년에 발족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활동을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게 될 이 중앙유치위원회를 국가계획 확정 이후에 곧바로 발족했던 2010년 세계박람회의 경우와는 달리 2006년 초에나 발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2005년 동안 정부가 기본 계획수립과 개최 후보지 정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 다음, 유치 활동을 민간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치 전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sup>5)</sup>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중앙정부가 유치추진 주체가 되어 대대적인 유치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진기획단은 해양수산부

4) 전라남도는 기획관실 산하에 ‘박람회 유치지원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치지원단은 4급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홍보팀과 개발팀으로 구성하고, 지방유치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5) 이처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선점효과를 얻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전라남도 관계자 등을 대거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유치 추진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 추진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맡되 대외 교섭은 외교부가 맡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범 정부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치기획단을 정점으로 지방유치위원회와 여수시유치위원회 간에 무엇보다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 노력이 요청된다. 정부와 지방이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서는 유치기획단은 주제 개발 등 박람회 기본 계획과 후보지 도시기반시설, 부지조성계획 등 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과 중앙유치위원회의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지방유치위원회와 여수시유치위원회는 유치기획단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

<표 5> 2012년 세계 인정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주요 단계	기간	추진 전략
국가계획 확정 단계	2004. 7. ~ 200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li> <li>- 국제행사 승인 등 정부방침확정</li> <li>-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의결</li> <li>· 2012년 세계박람회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구축</li> <li>-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기획단 발족</li> <li>- 정부지원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지방유치위원회 발족</li> </ul>
유치 준비 단계	2005. 1. ~ 200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li> <li>- 기본계획, BIE제출 보고서, 현지실사보고서, CIP개발</li> <li>- 후보지 도시기반시설 및 SOC, 부지조성계획 수립</li> <li>· 국내 유치분 조성 및 유치역량 결집</li> <li>-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선도해 나갈 중앙유치위원회 구성</li> <li>- 국내외 홍보활동 및 민간모금활동 추진</li> <l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관광인프라 및 SOC 조기확충</li> <li>- 박람회장 부지조성, 자동차 전용도로, 연륙연도사업 등</li> </ul>
교섭활동 단계	2005. 3. ~ 200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E 유력인사 초청 등 대외 홍보활동</li> <li>- 주한외교사절 초청, BIE유력인사초청, 2005 아이치EXPO홍보관 운영</li> <li>- BIE회원국 및 경쟁 예상국 동향 파악 및 유치전략 수립</li> <li>· BIE 91개 회원국 1~2차 교섭활동 - 재외공관 중심</li> <li>· 공식 유치신청 및 BIE 총회를 활용한 중점교섭활동</li> </ul>
총력 마무리 외교 단계	2007. 6. ~ 200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리에 합동전담반 설치 본격 활동 전개 - 교섭단 중심</li> <li>· 우호국 관리 및 비우호국 집중교섭 - 정부 교섭단 파견</li> </ul>

야 할 것이다. 지방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유치활동에 부응하여 개최후보지 권역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국가간 현안 해결에 해외 지자체와의 자매도시나 교류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외곽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유치위원회는 지역주민 차원의 유치 활동을 지원하되, 범국민적인 유치붐을 조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유치열기의 확산과 대국민 홍보에 전력하는 동시에 개최지 도시로서 시민의식 함양과 환경조성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실패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관련 조직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유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역할 분담에 따른 활동 조율과 아울러 정보 공유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유치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이라도 유치기획단과 지방유치위원회, 그리고 여수시유치위원회를 상호 연계하는 가칭 ‘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내년부터는 중앙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특히 재계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 구석구석에 지사망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강한 대기업들이 유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계,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과 보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용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기획과 실천적 역량을 발휘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확고한 유치 의지는 성공적인 유치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특별법’을 박람회 유치 확정 이전에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2년의 경우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원 미흡이 실패의 한 요인이었던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유치 업무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것은 당시 정부의 ‘선유치 후투자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을 적기에 보완하지 못한 원인에도 기인하므로 이 특별법 제정은 유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 차원에서는 박람회 유치 문제를 언제든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세계 박람회의 국가계획 확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는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남 의회나 여수시의회 등은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서를 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2002년 유치 실패의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 여수의 낮은 인지도 문제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차례 유치 추진으로 여수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아졌지만, 새롭게 등장할 경쟁 도시들과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지도 제고 노력을 지금부터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유치결정 투표에는 결국 ‘인식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수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여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2012년 해양엑스포는 사실 지자체 행사를 넘어 해양 한국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개척해나가는 국가적 사업이다. 여수의 홍보는 일차적으로 여수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해 증진과 우호적 여론 형성, 국가이미지 제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 같은 국제 홍보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전 세계적 방송망을 갖춘 아리랑 TV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며, 재외 공관 뿐만 아니라 KOTRA나 대기업의 해외 지사망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인 홍보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세계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긍정적 성과는 곧 전 국민의 것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0년 박람회처럼 또 다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게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격과 위상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꽃이나 도자기,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 일반 박람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박람회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반 박람회와 차별되는 명칭을 확정하여 사용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sup>6)</sup> 왜냐하면 명칭과 관련된 혼란은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인 국민적 유치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유치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승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매체 활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 개발 및 추진, 국내 각종 축제와 연계한 홍보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컨대 캐치프레이즈 공모 및 시상, 배너 신청 및 제공,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서포터즈 사이버 홍보단 결성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열악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대폭적인 확충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이건철 외, 2000). 다시 말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과거 실패의 결정적 빌미가 됐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지난번 유치 실패는 여수의 인지도와 더불어 각종 하부구조의 부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한 채 유치 확정이후에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는 유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여수의 경우 비단 세계박람회 유치가 아니더라도 각종 기반시설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에 가까운 실정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에도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6)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의 명칭을 해양수산부는 여수 세계인정박람회로, 전라남도는 여수 세계박람회로 그리고 여수는 여수월드엑스포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조만간 명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교통대책을 위해서는 국제교통망(인천·무안·제주 국제공항, 여수·사천·광주공항 국내선 연결; 한·중·일 크루즈 운항, 여수 - 일본 직항여객선 연결), 광역교통망(고속도로: 호남 및 남해, 전주 - 광양간, 전남 중부; 철도: 전라선, 경전선 복선전철화; 항만: 여수·부산, 여수-제주 쾌속 카페리호 운영), 지역교통망(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17호선 우회도로, 엑스포대로 등)의 확충과 조기완공이 필요하다. 숙박대책을 위해서는 엑스포타운 신축(사후 분양), VIP 특급호텔건립, 여관 50%를 지정 숙박업소로 운영, 홈스테이 제도 도입, 크루즈 유람선 입차 해상호텔로 운영 등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박람회의 개최는 2012년이지만 유치 신청은 2007년, 그리고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현지 실사와 개최지 결정은 2008년에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번 BIE 실사단의 평가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었다. 항공, 철도, 도로 등 여수로 접근하는 교통하부구조는 물론이고 숙박 및 각종 위락, 문화시설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숙박시설 등의 확충도 적어도 2008년 실사 이전까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계박람회 유치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들이 3~4년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데 지역민과 자치단체,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숙박이나 위락, 레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외 민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 유인 계기를 먼저 관광공사 또는 관련 정부투자기관의 컨벤션 리조트지구 개발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분 투자는 최근 남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해상관광루트의 구축’과 ‘동북아 크루즈 개설’, ‘남해안 해양관광특구 지정’, ‘남해수도여객항로 개설’ 등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과 긴밀히 결부시켜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여수시, 2005).

여섯째, 세계박람회는 국가적 행사이지만, 또한 개최지 도시의 시민축제이어야 한다. 세계박람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최종 목표도 아니다. 세계를 향한 관문(gateway)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새로운 눈을 뜨는 기회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치게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의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인가를 꿈꾸는 장이기도 하다. 세계박람회가 모든 시민들의 즐거운 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시민과 NPO나 NGO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세계박람회의 궁극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가에 의한 연대라는 본연의 자세를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의 역할은 시장이나 정부기능의 빈틈을 메우는 소극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지구적 과제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발상과 대응이

가능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화시대를 상징하는 인터넷사회의 도래가 시민간의 연결의식을 한층 더 강화시킴은 물론 활동영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용이하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다양한 시점에서 시민참가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성급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우선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차원에서 각종 참여활동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작게는 기초질서, 친절은 물론 외국어 교육 등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디자인과 문화·예술의 육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람회 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제안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우리는 목하 21세기의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국가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국가의 홍보효과도 크거니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세계박람회는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과 국가 브랜드의 업그레이드 등 세계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등 경제적 이득도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지난 2002년 12월 모나코에서 열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패배했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규모의 세계적 행사 유치경쟁에서 처음으로 실패했다는 심리적인 충격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재도전을 나섰다. 이렇듯 재도전을 시작한 현 단계에서는 우선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실패 원인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핵심적인 논점은 정부의 의지부족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뒷받침도 결여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개최 후보지인 여수에 고속도로조차 없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으로는 유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은 물론이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권의 확고한 뒷받침과 아울러 국민적 관심과 참여,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교활동을 극대화하며, 특히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의 해외 지사망 등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대내외적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매체, 즉 인터넷과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박람회사무국의 2008년 실사 이전까지 교통망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최 후보지권 도시 기반시설과 주요 사회간접자본, 숙박 및 위락, 문화시설도 BIE 실사가 예정된 2008년 3월 이전까지는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당시, 여수를 방문한 BIE 실사단이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깜짝 놀랐던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재도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치와 관련한 각종 유치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과 조직, 인력, 재정, 하부구조 등 개별적인 자원들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수는 과거의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회원국들에 대한 인지도를 자산으로 갖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때 34개국이 우리나라 여수를 지지했던 만큼 초반 유치전부터 어느 나라의 그 어떤 유치 도시보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신해양시대의 선도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희망찬 미래의 행복한 해양 국민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안재, 1998, “2110 해양엑스포 유치를 통한 여수대도시권 발전의 새로운 모색,” 여수상공회의소(편), 『21C 동·서 발전의 새로운 전기 : 2010 해양엑스포 여수유치 심포지엄 결과 보고서』, 여수, pp.21-29.
- 김의준 외, 2003, 『21세기 동북아시아시대의 관문 - 여수대도시권 발전방향』(여수지역경제연구총서 10),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상공회의소(편), 1995, 『21세기를 위한 여수반도권의 관광개발방향과 전략 심포지엄』, 여수.
- 여수시, 2005, “남해안 시대의 여수시 발전전략,”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편), 『남해안 발전 국제심포지엄 토론 자료집』, 광주, pp.103-108.
- 이건철 외, 2000, 『남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여수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여수지역경제연구총서 8), 여수상공회의소.
- 이정록, 1998, “2110 해양엑스포 여수지역 입지타당성 분석,” 여수상공회의소(편), 『21C 동·서 발전의 새로운 전기 : 2010 해양엑스포 여수유치 심포지엄 결과 보고서』, 여수, pp.31-176.
- 전라남도, 1998, 『21세기 만국박람회 기본구상』, 광주.
- 전라남도, 1998, 『국제박람회의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
- Becker, W., 1986, Messen und Ausstellungen - eine sozialgeographische Untersuchung am Beispiel Muenchen. Kallmuenz.
- Moeller, H., 1989, Das deutsche Messe- und Ausstellungswesen. Standortstruktur und räumliche Entwicklung seit dem 19. Jahrhundert, Trier.
- 2005 아이치 엑스포 홈페이지 (= <http://www.expo2005.or.jp/jp/index.html>)
- 세계박람회사무국 홈페이지 (= <http://www.bie-paris.org/main/index.php?lang=1>).
- 2000 하노버 엑스포 관련 홈페이지 (= <http://www.expo2000.de/index1.php>).

<Abstract>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Induction of 2012 World  
Exposition in Yeosu, Korea**

**Young-Jin Ah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deals with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induction of 2012 World Exposition in Yeosu, Korea. In the year 2002 Yeosu already ran to induce 2010 World Exposition and second in the race. In spite of this failure Yeosu is again making preparation for the next world exposition. For the win in the race of induction it seems that various strategies and endeavors are needed: a clos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tates, a strongly support of political sides and citizen's participation, a continuing image marketing of the city Yeosu, and a large-scal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or infrastructures etc.

**Keywords:** world exposition, Yeosu, successful induction, practical strategy.